

한배를 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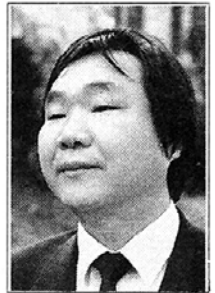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날로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는 계속되는 임금상승이 중요한 원인이며, 또한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신소재 개발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를 꺼리고, 인이하게 돈을 벌수 있는 사치성 물품의 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들의 타성에...

정치 국민신뢰 회복 관건

집권당이나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하여,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가들을 따르려 하지는 않고 있다. 정치현실은 경제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는 오랫동안 쌓여진 원인이 있다. 5·16혁명 이후 조국근대화 회의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고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러 국민의 결집력과 과감한 행정적 뒷받침으로 달려온 속도의 경제성장을 한때 이룩할 수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력한 중앙집권...



김항배 (동국대학교수·철학과)

與野 '경제대책회의' 구성

국가위기 민족저력 발휘 '호소'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김종필 자민련총재, 이회창 신한국당대표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4자 회담을 갖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깊이 있게 협의하기 위해 여야정당과 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대책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구성한다"고 합의문을 통해 발표했다.

한 논의사항으로 꼽았다. 또 이 기구의 성격을 정치적 합의기구로 규정, 집행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일로를 걸고 있다. 울퉁불퉁한 수출이 내리 3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총외채는 1천4백억달러를 넘어서 94년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지역에서만 하루평균 24개 업체가 부도를 냈으며, 또 체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그런 가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을 '무...



◇여야대표들이 1일 낮 '경제회담'에 앞서 회담하고 있다.

수출 3개월째 감소·외채 1천4백억 달러 국민 표류상태...정치권 자정 노력 급선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애국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따라 3당 정책위의장은 2일 모임을 갖고 기구의 명칭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약칭 경제대책회의)로 하고 활동시한을 연말까지 정하는 등 구체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구에는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장, 노총과 민노총,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대표 각1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정책위의장들은 무역수지 방어책, 고용안정 물가안정,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 금융실명제 보완, 중소기업 지원책, 사교육비 감축대책 등을 시급

역장벽'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번 4자 회담에 대해 "경제회담의 의의를 입은 정치회담" "내막적으로는 정쟁으로 서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공생을 위해 자제하자는 3김씨 사이의 다짐"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체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늦지는 했지만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정치지도자들 비롯한 국민 모두의 마음모으기에 경제회생의 성과가 달려 있다.

정성운 기자

"우유와 물 섞이듯 서로 화합하라"

불교의 관

경블론 김동훈 사무처장은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저비용의 정치제도 실시 등 정치권의 자정노력을 먼저 보여줄 때 국민들도 동참할 것"이라며 경제를 정치도구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구슬 비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다." (증일아함경 제16)

지계

금주

파계

신한국당의원 세비10% 반납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매월 세비의 10%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박희태총무는 지난 2일 당무회의에서 "세비 10% 반납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곧 의원들의 동의할 얻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3천3백59만8천원이 기금으로 전달된다.

오갈피목목 무료분양

●...충남천안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성광수씨(51)가 식목일을 맞아 오갈피 목목 1만5천주를 가꾸당 10구루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에 나섰다. 오갈피나무는 항염 항암 항피로 항스트레스 중추신경흥분 대사촉진 해독작용 등과 같은 효능이 있는 신비의 나무.

韓赤, 대북지원물자 복송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일 인천항에서 북으로 보낸 제14차 대북식량지원품이 4일 남포항에 도착, 북한적십자사측에 전달됐다. 이번 대북지원물은 95년 11월 한적

을 단일장부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후 최대규모로, 감자 1천6백50톤, 전지분유 10톤, 무 및 배추종자 1만1천톤 등 모두 1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 지원되는 구호물자는 불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와 YMCA연합회 등이 한적에 기탁한 성공으로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승용차 사주기

●...서울 송파구가 지적장애인에게 재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해 '장애인 승용차 사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승용차 기증대상은 10여명으로, 관내 종교단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문을 보내 5월말까지 기증받을 계획이다.

주민에게 대학 도서관 개방

●...전국대 총주캠퍼스가 도서관내 장소와 각종 교육용 자료를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해 지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총주캠퍼스는 오는 5월부터 시내 각급학교 교원과 도의원 및 시의원 일 반주민 등 3천여명에게 도서관열람을 발급할 계획이다.

하루 26건 산불 '비상'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3월 30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26건의 산불이 발생, 약 50Ha의 임야를 태웠다. 경기도 양주군 천보산 산불로 보물 제387호인 선각왕사비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이번 산불은 대부분 담배불과 취사화기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서울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에서도 2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하루 237명

●...경찰청은 지난 3월 31일 오후3시부터 자정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무단횡단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2천3백77명을 적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무단횡단 등 보행질서 위반자 5만3천9백11명에게는 1만~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이비종교 인터넷 침투

●...사이비종교 집단이 인터넷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3월 26일 미국 캘

리포니아에서 집단자살한 39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기독교에 뿌리를 둔 사교집단인 '천국의 문' 신도들로, 이들은 인터넷에 '하이어스'란 사이트를 개설,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기도 했다.

강화군청 직원 역대수회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일 관공공사의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 5명을 수회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9월 강화군 석모2리 도로포장공사 준공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학습지채택 비리교사 적발

●...특정출판사의 학습지나 참고서를 부교재로 채택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광주지역 교사 1천4백여명을 조사, 이 가운데 5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백만 원 이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1백여명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대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기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등
연수 후: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道修 證明書)
인원: 10명 선착순
출발일: 1997년 5월 22일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화: (02)511/2026-8

제3회 능엄법회

봉선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에서는 매년 능엄경 강좌를 개설·스님 및 불자를 대상으로 능엄세계를 펼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강사: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학)
일정: 불기2541년 4월14일(월)개강 오전 11시 ~ 12시30분 매주 월요일(6개월과정)
교재: 능엄경 주해
강의료: 십만원

문의: (02)584-1108 587-3753

봉선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

●홍천임업조합 마크를 확인하세요

Advertisement for ginseng products with images of ginseng roots and text: 장뇌산삼, 홍천임업조합에서 공급하는 15~30년근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 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능 장뇌산삼을 통해 산삼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봄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884-0468~9 017-232-2786(김남일)



건강하움은 불자님!

건강과 성분을 발원 하움고 가내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산삼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최저가 가격에 모시고 있으시니 연락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특품 1세트 3뿌리 65만원

- 홍천임업조합 홍천임업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팔려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어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채주문 및 선물용이 다양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홍천도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